

# 1990년대이후 일본반동들의 집요한 역사외곡책동

정진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일본군국주의자들은 지난날 우리 나라를 강점하고 우리 인민에게 해아릴수 없는 불행과 고통을 들씌운 불구대천의 원수이며 오늘도 조선에 대한 침략야망을 실현하기 위하여 미쳐 날뛰는 가장 위험한 적입니다.》(《김일성전집》 제48권 181페이지)

일본은 《을사5조약》날조를 계기로 우리나라를 강점하고 40여년간이나 가장 악랄한 식민지통치를 실시하면서 역사에 류례 없는 죄악을 감행하였다.

일본반동들은 저들의 패망에서 심각한 교훈을 찾을대신 시대적흐름에 역행하여 군국주의길로 나아가고있다.

그것은 일본반동들이 집요하게 벌리고 있는 역사외곡책동을 통하여서도 잘 알수 있다.

일본반동들의 집요한 역사외곡책동은 무엇보다먼저 일본반동정부가 직접 앞장에서서 지난날의 피비린내나는 침략역사와 죄행을 부정하고 찬양하는 망언을 일삼는데서 나타나고있다.

1990년대이후 일본의 정계인물들은 서로 앞을 다투어 공공연히 과거를 부정하고 미화분식하는 망발을 련발하였으며 그것은 새 세기에 들어와 더욱더 로골적인 형태를 띠였다. 특히 일본의 극우익적인 호전분자인 전 도쿄도지사 이시하라 신타로는 2003년 10월 28일과 31일에 1910년의 《한일합병》은 조선인 스스로의 뜻에 따른것이며 《조선선조들의 책임》이라느니 하면서 《조선에 있어서 일본의 식민주의는 인간적이었다.》고 과거를 외곡할뿐아니라 찬양미화하는 망언을 서슴지 않았고 이후에도 그러한 망언은 계속되었다.

2005년 패망 60년을 맞으며 일본반동

정계에서는 저들이 서명하고 인정한 파쇼 전범국가로서의 일본의 패전과 전후처리를 규정한 제2차 세계대전의 국제법적문건들까지 부정하였으며 2005년 8월 일본반동정계에서는 《극동국제재판소의 판결은 점령국의 일방적인 판결이다.》, 《수급전범자들은 죄인이 아니다.》, 《일본이 사죄할 필요가 더는 없다.》는 국제법적판결을 전면 뒤집어엎으려는 꾀변들을 들고나왔다.

이러한 망발들은 결국 일본반동정부가 과거의 역사를 전면외곡하고 미화분식하고있다는것을 보여준다.

일본반동들의 집요한 역사외곡책동은 다음으로 역사를 외곡하여 교과서를 서술하고 교육에 리용하도록 하는데서 그 절정을 이루고있다.

패망직후에 벌써 일본의 반동계층은 과거침략사를 외곡하는 역사교과서서술을 기도하였으나 국제반파쇼세력과 일본의 민주세력에 눌리워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그러나 1980년대 호전적인 나까소네집권시기에 다시 머리를 쳐들고 달라붙었고 랭전종식이후인 1990년대초이후부터 로골적으로, 공공연히 감행하기 시작하였다.

일본의 각급 학교 역사교과서들중에서 과거범죄를 부정하고 은폐하며 정당화하는데 제일 앞장선 극우익적인 교과서는 《후소사》에서 출판한 《최신일본사》이다. 2005년 4월 5일 일본문부과학성의 검정에서 통과된 이 역사교과서는 1920년대 일제가 우리나라의 고대, 중세력사를 일본에 유리하게 날조하고 깎아내린것을 그대로 서술한것은 물론 근대이후 일본군국주의 조선침략력사를 전면적으로 부정하고 외곡서술하고있다. 이 역사교과서는 일제의 조선강점통치가 《조선의 근대화를 도왔다.》고

외곡서술하는 등 과거조선침략사를 교활하고 공공연하게 외곡, 은폐, 미화하고있으며 전대미문의 일본군 위안부범죄내용을 아예 삭제하였고 역사적으로나 지리적으로 우리 나라의 고유한 령토인 독도를 《일본령토》로 표기하고있다.

※ 이 역사교과서는 조선침략론인 《정한론》이 일본의 개국권고를 거절해온 조선의 태도가 무례한데로부터 사무라이들속에서 주장된것으로, 조선이 로씨야의 지배밑에 들어가면 일본의 안전을 지키는 것이 곤란하므로 일본이 할수 없이 로일전쟁을 도발한것으로, 일본의 안전과 만주의 권리와 리익을 보장하기 위하여 조선을 《병합》한것으로, 일제의 조선강점시기 악독한 식민지노예화와 민족말살, 강제련행 및 대학살만행들을 얼핏 스치거나 《소요》가 있었다는 식으로 침략적본질과 죄행을 외곡, 은폐, 정당화하고있다.

교과서를 통한 역사외곡책동은 중학교용교과서뿐아니라 고등학교용역사, 지리교과서에서 더욱 우심하게 나타나고있다.

일본에서 발행되어 2007년 새 학기부터 사용되고있는 고등학교용역사, 지리교과서에는 《독도령유권》문제, 일본군 위안부문제, 《창씨개명》과 《야스구니진자》참배문제 등 여러가지 주요한 역사문제들이 외곡서술되어있는데 그 정도는 2005년판 중학교용역사교과서의 외곡보다 더 우심한 형태를 띠고있다.

일본의 교과서를 통한 역사외곡책동은 단순히 일부 어용학자들에 의해서가 아니라 일본정부와 극우익적인 정치세력에 의하여 추진되었다는데 그 위험한 특징이 있다.

중학교용역사교과서인 《최신일본사》를 집필한 《새 역사교과서를 만드는 모임》은 일본자민당의 《역사검토위원회》가 정치적배경이 되고 여기에 어용학자들을 끌어들여 1999년 1월에 조직된 《학술단체》의 감투를 뒤집어 쓴 극우익단체이다. 이 단체

는 《밝은 일본국회의원련맹》, 《일본의 앞날과 역사교육을 생각하는 젊은 의원모임》 등 자민당내 극우보수정치조직들과 전 수상 모리 요시로, 전 문부과학상 마찌무리 노부다까, 전 도쿄도지사 이시하라 신파로 등 전직, 현직 정계인물들의 정치적지원, 가시마건설, 스미토모제철기업들, 미쓰비시중공업,가와사키중공업 등 100여개 대독점기업체의 막대한 재정적지원 그리고 우익보수신문인 《산케이신붕》의 언론적지원을 받고있다.

교과서를 출판한 《후소사》도 《산케이신붕》의 영향밑에 있는 출판업체이다.

일본정부는 역사교과서외곡책동에 직접적으로 개입하고있다.

일본문부과학성은 이시하라를 비롯한 극우익정치인들과 결탁하여 《후소사》판 역사교과서가 2001년에 처음으로 검정에서 통과되었지만 전국적으로 그 사용을 허가하는 채택률이 0.039%밖에 되지 않았던 점을 고려하여 종래의 교과서채택제도까지 고치고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채택률을 높임으로써 반동적인 역사교과서에 의한 교육범위를 넓히려고 책동하고있다.

일본정부는 량심적인 학자들에 의하여 집필되어 국가검정에 제기된 교과서들의 구체적인 내용들까지도 간섭하면서 외곡을 강요하고있다.

문부과학성은 2006년 고등학교용검정신청본교과서들에 《독도가 일본의 령토라는 사실이 명확히 드러나있지 않다.》고 하면서 《독도가 시마네현에 속해있으나 남조선이 령유권을 주장하고있다.》고 고치도록 하였다. 또한 《일본군에 의하여 위안부가 된 녀성》이라는 문구도 일본이 가해자로 될 우려가 있다고 하면서 《일본군의 위안부가 된 녀성》으로 고치도록 하고 《창씨개명》, 《야스구니진자》참배문제 등 20여군데를 외곡하였다.

전 일본수상이였던 고이즈미가 일본자

민당의 수상후보로 나섰을 때인 2001년에 《후소사》판 역사교과서의 과거침략사외곡을 들러싸고 우리 나라와 중국이 강하게 항의하는데 대하여 《일본이 그때문에 흔들릴 필요는 없다.》고 한것은 일본의 역사부정, 역사외곡의 장본인은 현 일본당국이라는것을 여실히 증명하고있다.

그러면 일본반동들의 집요한 역사부정외곡책동의 목적은 어디에 있는가.

그것은 무엇보다먼저 우리 나라에 대한 과거청산을 회피하려는데 있다.

일본이 지난날 우리 나라를 비법적으로 강점하고 조선인민에게 헤아릴수 없는 불행과 고통을 강요한데 대하여 진심으로 사죄하고 막대한 피해에 대하여 국가적인 규모에서 충분히 배상하는것은 과거청산의 근본내용을 이룬다.

과거력사에 대한 태도는 일본이 과거청산을 하려고 하는가, 회피하는가를 가르는 기준으로 된다. 그것은 죄악에 찬 과거를 솔직히 인정하는것이 과거청산을 위한 도덕적기초로, 첫 걸음으로 되기때문이다.

일본이 오늘 한사코 지난날의 침략력사와 죄행을 인정하지 않고 부정외곡하며 《합법성》을 쟁치고있는것은 이 문제가 바로 과거청산과 직결되어있기때문이다.

도이쉴란드는 오래전부터 히틀러나치스의 침략력사와 범죄에 대하여 솔직히 인정하고 세계앞에 여러차례 진심으로 사죄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도덕적기초우에서 스스로 보상에 관한 법들을 제정하고 피해를 입은 모든 나라들과 개별적사람들에게 국가, 정부급에서 철저히 배상하는 정책을 실시하였다.

도이쉴란드는 랑전종식후 로씨야와 동유럽나라들에도 배상계획을 확대실시하였으며 한번의 배상에 그치지 않고 성근한 자세에서 추가배상을 실시하고있으며 국가적배상을 위주로 하면서 이 사업에 나치스범죄와 관련이 있는 기업들이 참가하는

민간급배상까지도 진행하고있다.

특히 도이쉴란드정부는 지난날의 침략력사를 부정외곡하려는 온갖 시도들에 대하여 단호한 반격을 가하고있다.

과거력사와 청산에 대한 도이쉴란드의 이러한 태도는 정부가 앞장에 서서 조직적이며 계획적인 역사부정외곡책동을 벌리는 일본과 상반되는 대조를 이루고있으며 이로 하여 일본은 세계의 규탄과 비난을 면치 못하고있다.

프랑스대통령은 2005년 3월 일본방문을 앞두고 《아사히신붕》과 가진 기자회견에서 일본이 이웃 나라들과의 관계를 원만히 유지하려면 과거의 일을 받아들이는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과거청산에서 일본은 도이쉴란드를 본받아야 할것이라고 비난하였다. 심지어 2012년 7월 미국의 《뉴욕타임스》까지도 1970년대에 당시 서부도이쉴란드수상이 와르샤와의 유대인대학살 위령비앞에서 무릎을 꿇고있는 사진을 게재하고 《이 행동은 도이쉴란드가 세계와의 화의를 진지하게 바라는 상징으로 되었다. 일본은 도이쉴란드의 행동을 따라배울 필요가 있다.》고 비난하였다.

일본반동들이 과거력사를 부정외곡하는 책동에 집요하게 매달리는 목적은 다음으로 우리 나라에 대한 침략의 역사를 재현하려는데 있다.

과거력사에 대한 태도는 일본이 과거와 같은 범죄를 반복하려 하는가, 아니면 평화의 길로 나가려 하는가를 재는 척도로 된다.

일본의 과거력사는 가장 악랄하고 잔인무도한 죄행으로 엮어진 침략의 역사이다.

력사는 아직 일제와 같이 그토록 포악하고 잔악한 침략자, 략탈자, 살인악마들을 알지 못한다. 지난날 일제가 조선을 강점하고 감행한 피비린내나는 살륙만행과 략탈행위는 국제법적견지에서 보나 인륜도덕과 량심의 견지에서 보나 시효를 따질수 없는 특대형반인륜범죄였다.

만일 일본이 과거력사에서 교훈을 찾고 새 출발을 하려는 의지가 조금이라도 있다면 침략의 역사에 대하여 솔직히 인정하여야 할것이다.

일본이 죄많은 과거를 인정하지 않고 그와 결별하지 않는것은 바로 침략력사를 되풀이하려는 야망을 품고있기때문이다.

후대들에게 일제의 침략력사를 사실 그대로 알려주는것은 자라나는 새 세대들이 다시는 그러한 길을 걷지 않도록 교양하는데서 매우 중요하다.

그런데 일본반동들은 신성한 교육사업을 악용하여 저들의 침략력사는 《정의》이며 자기들이 패망한것은 아쉽게도 《힘이 모자랐기때문》이라는 식의 외곡된 역사교육으로 새 세대들에게 군국주의사상을 주입시켜 해외침략의 길로 떠밀려 하

고있다.

일본반동들이 패망후부터 지금까지 군국주의야망을 버리지 않고 해외침략의 칼을 베풀어온 사실은 일본이 기회만 조성되면 우리 나라에 대한 재침의 포성을 울릴수 있다는것을 예고하여주고있다.

일본반동들의 집요한 역사외곡책동은 그 목적에서 가장 반동적이며 침략적이다.

일본반동들이 과거력사를 부정하고 외곡한다고 하여 지난날 조선인민과 인류앞에 저지른 죄악은 절대로 덮어버리거나 지워버릴수 없다.

일본이 진정으로 《적국》의 오명을 벗고 국제사회의 한 성원국으로 떳떳이 살려면 역사외곡책동에 매여달릴것이 아니라 조선민족앞에 죄많은 과거를 솔직하게 인정하고 배상하여야 할것이다.